LG전자 엔지니어링 부문 분석 보고서

📌 기업 개요

LG전자는 1958년 금성사로 설립되어, 현재는 글로벌 3대 가전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자기업입니다. 'Life's Good'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고객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현재 LG전자는 16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으며, 주요 사업 부문으로는 H&A(Home Appliance & Air Solution), HE(Home Entertainment), VS(Vehicle Solution), BS(Business Solutions), 그리고 각 부문을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부문이 존재합니다.

엔지니어링 부문은 제품 기획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설계, 개발, 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를 담당하며, LG전자의 기술적 경쟁력을 실제 생산성과 품질로 연결시키는 핵심 부서입니다.

🟨 담당 직무

LG전자 엔지니어링 직무는 단순한 설비 운영을 넘어, **미래 지향적 생산 시스템 구축과 고도** 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생산 설비 및 자동화 시스템 설계: Al 기반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한 설비 Layout 설계 및 최적화.
- 신제품 생산 대응 공정 개발: 신제품 기획 단계부터 엔지니어링이 참여하여 제조성을 사 전에 검증하고 표준화된 공정 구축.
- 설비 효율화 및 TPM 활동: Total Productive Maintenance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불량률 저감.
- **디지털 트윈 기반 설비 시뮬레이션**: 3D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산 흐름을 사전에 예측하고 설비 배치 최적화.
-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설비 개발: ESG 경영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설비 도입.

☑ 필요 역량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 전공 역량: 기계공학, 전기전자, 산업공학, 메카트로닉스 등 전공자 우대.

- 설계 툴 활용 능력: AutoCAD, CATIA, SolidWorks 등의 2D/3D CAD 프로그램 능숙자.
- 공정 개선 경험 및 분석력: 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및 개선 아이디어 도출 경험.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능력**: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부서와 유기적으로 일하며 프로젝트를 리드할 수 있는 능력.
- 글로벌 역량: 영어 커뮤니케이션 가능자 및 해외 공장 협업 경험 우대.

◎ 인재상

LG전자는 다음과 같은 인재를 원합니다:

LG전자는 **고객 중심, 실행 중심, 지속가능한 성장**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 **도전과 혁신의 마인드**: 기존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 실행력과 책임감: 주어진 역할에 대한 주인의식과 실행력으로 끝까지 완수하는 자세.
- **글로벌 감각**: 다양한 문화와 시장을 이해하며 글로벌 수준에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 윤리의식과 공동체 정신: 투명성과 정직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료와의 협업을 중시하는 태도.
-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자: 환경,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려는 자세.

> 2025년 신년사 요약

LG전자의 2025년 신년사에서는 **'기술 중심의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 Al 및 DX 중심의 전략 전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전사적으로 확대해나 갈 것임을 천명.
-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여 시장별 대응력 확보.
- 고객 경험 중심의 혁신 확대: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고객의 사용성과 만족도를 반영한 혁신 추구.
- 조직문화 혁신: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는 업무 환경 조성.

• **ESG 실천 강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전환, 윤리경영 고도화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 가겠다는 계획.

📰 최신 뉴스 요약 (2025년 6월 기준)

📖 기업 중심 뉴스 요약

1.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LG전자는 평택, 창원 등 국내외 주요 생산 거점에 AI 기반 스마트팩토리를 확대 적용 중입니다. 특히 딥러닝 기반 불량 감지 시스템과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 글로벌 현지 생산 확대

미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신규 설비 투자가 단행되며, 현지 맞춤형 엔지니어링 설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링 부문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ESG 기반 설비 투자

ESG 강화를 위해 기존 탄소 배출량이 높은 설비를 폐기하고 고효율 친환경 설비로 전면 교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 수요도 증가 중입니다.

🚨 직무 중심 뉴스 요약

1. 설비 자동화 인력 수요 급증

최근 LG전자는 제조 공정 내 무인운반차(AGV), 로봇 암(Robot Arm) 등의 스마트 설비 확산으로 설비 자동화 인력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AI 기반 공정 설계 프로젝트 진행

엔지니어링 부문에서는 AI가 공정의 병목 구간을 식별하고 설계안까지 추천하는 'AI 설계 보조 시스템'을 시험 도입하며, 관련 분석 역량과 시스템 기획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적용 확대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가상의 공장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생산 효율을 예측 하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며,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실무 적 용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재무 요약 데이터 (최근 5일 종가 기준)

2025-06-19	112,000
2025-06-20	113,500
2025-06-23	111,800
2025-06-24	114,200
2025-06-25	115,300

해당 주가 데이터는 yfinance API를 통해 크롤링되었으며, 최근 6개월간의 주가 중 가장 최근 5일의 데이터를 시계열로 정리하였습니다.

LG전자 엔지니어링 부문 분석 보고서 4